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5.26.(화) 5월 4주차 (제26-34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관세) USTR, 16개 경제권 대상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공청회 개최 ····· 2
•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5월 경선 결과 및 향후 주요 일정 ····· 6

미국 경제통상 동향

• (반도체) 화웨이, 1.4nm급 초미세 첨단 칩 관련 자체 기술 공개 ····· 9
• (수입규제) 美 상무부, 한국산 철강제품 AD·CVD 연례재심 최종 결과 발표 ····· 9
• (조선업) 美, 2027 회계연도 조선 계획 발표 ····· 10
• (입법) 美 상원, 상무부 232조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 11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의회) 중국 견제, 수출 규제, 무역 정책, 반도체 등 4건 ····· 12
• (행사) 브루킹스, 국제전략연구소 행사 2건 ····· 12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3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14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5.27(수)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총재 연설(Federal Reserve governor Lisa Cook speech)
5.28(목)	• 5월 셋째 주 초기 실업수당 청구(Initial jobless claims, May 23)
5.29(금)	• 1분기 GDP (두 번째 개정판)(GDP (second revision, Q1)
6.1(월)	• 5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ISM manufacturing)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관세) USTR, 16개 경제권 대상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공청회 개최

- USTR, 16개 경제권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제조업 생산 왜곡 관련 301조 공청회 개최
- 철강·배터리·태양광 등에서 과잉생산, 제3국 우회, 공급망 지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
- 소비재·소매업계는 관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하며, 품목별·공급망별 선별 접근 필요성 제기

1. 개 요

□ USTR, 구조적 과잉생산 및 제조업 생산 왜곡 관련 301조 조사 공청회 개최

• **USTR은 5.5~5.8일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16개 경제권의 구조적 초과 생산능력 및 제조업 생산 왜곡 관련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공청회 실시**

- 조사 대상은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EU, 브라질, 터키 등 16개 경제권

- 총 7개 범부처 패널 주관하에 산업계, 노동·인권·환경 단체, 외국 정부 관계자 등 약 12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출석해 산업별 쟁점과 정책 의견 진술

- 논의 분야는 철강·알루미늄, 배터리·핵심광물, 반도체·디스플레이, 태양광, 화학·석유화학, 소비재, 농식품, 자동차 등 주요 제조·소비재 산업 전반을 포괄

• **공청회에서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 비시장적 생산 유지, 산업정책, 제3국 우회 수출 등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

- 철강·배터리·태양광 등 전략산업 업계는 중국의 국가 주도 생산 확대와 보조금 기반 가격 왜곡이 미국 제조업 및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

- 일부 소비재·소매업계와 외국 정부는 과잉생산 원인을 특정 정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관세 조치가 소비자 부담과 공급망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 산업별 증언에서는 중국의 보조금 기반 생산 확대와 공급망 지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산업별로는 베트남·터키·인도·인도네시아·모로코·멕시코 등 제3국 경유 수입 및 국가별 생산 왜곡 사례도 함께 제기

2. 산업별 주요 증언 내용

□ 철강·알루미늄 : 중국발 초과생산 및 제3국 우회 수입 문제 제기

- **철강 업계는 전 세계 철강 초과생산능력은 약 6억 메트릭톤(MT)으로, 중국의 보조금 기반 생산 유지가 글로벌 공급과잉·가격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
  - 중국의 철강 수출량이 북미 전체 소비량을 상회하고, 중국 철강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OECD 평균 대비 약 10배 수준이라는 증언 제시
  - 중국산 철강이 멕시코·베트남·태국 등 제3국을 경유하거나, 태양광 패널 부품 및 OCTG 등 하류 제품에 내재화되어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구조적 우회 문제 지적
  - 알루미늄 분야는 중국의 연간 알루미늄 생산량이 약 4,500만 MT에 달하는 반면, 미국 내 제련능력은 외국산 초과공급 영향으로 약 80% 감소했다는 증언 제시

□ 배터리·핵심광물 : 중국의 핵심 소재 공급망 지배 및 제3국 생산 연계 문제 지적

- **업계는 리튬·흑연·니켈·망간 등 주요 소재에서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이 높고, 이로 인해 미국 및 동맹국의 공급망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
  - 리튬 가격은 '22~'25년간 약 80% 하락했으며, 중국의 비시장적 과잉공급이 미국 및 동맹국 생산기업의 투자 여건을 약화시켰다는 증언 제시
  - 중국이 배터리급 흑연 음극재(AAM) 공급망의 약 99%를 통제하고 있다는 증언이 제시되며, 배터리 핵심소재의 대중 의존도와 공급망 취약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
  - 인도네시아·모로코 등 제3국 생산 과정에도 중국 자본·기술·원자재가 관여한 사례가 제시되며, 공급망 실질 통제 여부를 반영한 원산지 검증 필요성 제기

□ 반도체·디스플레이 : 범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중국 생산능력 확대 우려

-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이 28나노미터 이상 범용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동차·전자·산업장비 등 하류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
  -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와 달리 광범위한 제조업 공급망에 활용되는 품목으로,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가 미국 및 동맹국 공급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

-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28년까지 글로벌 첨단 디스플레이 판매의 약 75%를 점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증언 과정에서 제시

- 다만, 범용 반도체·디스플레이와 AI 칩 등 첨단 반도체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초과생산능력 논리의 일괄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태양광 :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공급망 내 중국 지배력 문제 부각**

• **태양광 업계는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수요의 2배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손실에도 생산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

- 중국이 글로벌 폴리실리콘 생산의 약 95%를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 태양광 기업의 동남아 생산 이전·확대가 미국 무역조치의 우회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 다만 태양광 투입재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적용은 미국 내 모듈 제조 확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완제품과 핵심 투입재를 구분한 선별적 접근 필요성 제기

□ **소비재·소매업 : 국내 대체 생산 기반 부족 및 소비자 부담 확대 우려**

• **소비재·소매업계는 신발·의류·생활용품·비디오게임 콘솔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미국 내 대체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라고 주장**

- 신발 업계는 미국이 연간 약 20억 켤레의 신발을 수입하고 있으며, 해당 수입 구조는 정부 주도 초과생산이 아닌 소비자 수요와 글로벌 분업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

- 의류 업계는 미국 의류 수입이 주요국에 집중(약 77%)되어 있으나, 수입 가치 상당 부분은 디자인·물류·소매 등 미국 내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환류된다고 주장

- 소매업계는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소비자 비용을 높이고, 대중 관세 이후 동남아로 다변화한 공급망의 예측 가능성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 USTR은 이후 제출 의견, 공청회 증언, 반박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조사 대상국의 행위·정책·관행이 Section 301상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예정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Holland&Knight(5.12), 로이터(5.5), 인사이드(5.20)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5월 경선 결과 및 향후 주요 일정

■ 5월 경선 순차적으로 실시 … 트럼프 지지 후보 다수 승리, 공화당 내 親 트럼프 결속 재확인

■ 트럼프에 비판적이었던 현역 의원이 낙선하는 등 '공천 충성도' 심사 성격의 경선 본격화

■ 선거구 재조정 파급 지속, 하원 다수당 향방에 따른 관세·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주목

1. 개 요

□ 5월 주요 경선 결과 요약

- **켄터키·조지아·앨라배마·펜실베이니아·오리건·아이다호 6개 주에서 공화·민주 양당 경선이 동시 진행(5.19)되었으며, 5월 26일에는 텍사스 상원 결선이 실시되는 등 경선 국면 지속 중**

  - 공화당 경선에서는 트럼프 지지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하며 친트럼프 결속 재확인. 한편, 트럼프에 비판적이었던 켄터키 현역 의원은 낙선하며 조지아 주지사 결선 진출

〈5월 경선 주요 결과〉

주(州)	주요 경선	결과 요약
켄터키	하원 4선거구(공화)	• 트럼프 지지 갤레인(Gallrein)이 현역 매시(Massie) 상대로 승리 • 트럼프 비판 현역의 낙선으로 당내 이견 용납 기조 재확인
조지아	주지사(공화)	• 트럼프 지지 존스(Jones) vs. 기업인 출신 잭슨(Jackson) → 과반 미달로 6.16 결선 진출
앨라배마	주지사(공화)	• 트럼프 지지 투버빌(Tuberville) 상원의원, 공화 후보 확정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민주·공화)	• 민주: 샤피로 재선 후보 확정 공화: 개리티 재무장관 후보 확정
오리건	주지사(공화)	• 14명 난립 속 드레이전(Drazan) 후보 결선 진출 : 전통적 민주 우세 주에서 공화 경쟁력 시험대
아이다호	하원·주지사(공화)	• 親 트럼프 현역 대부분 경선 통과, 당내 이변 없음.
텍사스	상원(공화)	• 현직 코닌(Cornyn) vs. 트럼프 지지 팩스턴(Paxton) 결선 – 결과 집계 예정 (5.26)

[자료: 폴리티코,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 종합]

2. 상 세

□ 현지 언론이 바라본 트럼프 공천 영향력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상·하원·주지사직을 포함해 200건 이상의 공천 지지를 행사하였으며, 5월 경선에서 지지 후보 대다수가 승리**

  - 폴리티코는 이번 결과를 '공화당 내 충성 인사 결속 강화 과정'으로 평가하며, 대통령이 이를 통해 당에 대한 구조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켄터키 4선거구에서의 현역 의원 낙선은 당내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경선 기조를 상징하는 사례로 집중 조명

  - 다만 조지아 주지사 경선에서 자비 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한 기업인 출신 잭슨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 것은, 자본 변수가 여전히 작동함을 보여주는 사례

- **현재 하원은 공화 218석 대 민주 215석으로, 민주당이 4석만 추가 확보 시 다수당 지위를 탈환 가능한 구도,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11월 총선까지 경합 선거구 후보 경쟁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

□ 중간선거의 선거구 재조정 현황

- **이번 중간선거는 196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선거구 재조정 국면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전체 하원 435석의 약 30%가 재조정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

  - 현재까지 캘리포니아·미주리·노스캐롤라이나·오하이오·텍사스·유타 6개 주가 새 선거구 지도를 확정하였으며, 플로리다·버지니아 등은 논의가 진행 중

  - 미국 대법원이 2025년 12월 텍사스의 새 지도 사용을 허용한 이후, 소수 인종 단체들의 소송이 병행 진행 중, 일부 선거구는 총선 직전까지 최종 확정 지연 가능성 존재

  - 전체적으로 공화당은 최대 2~4석 증가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나,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

□ 현지 기관들이 바라본 정책 환경 변화 전망

- **현지 컨설팅 기관 Cherry Bekaert는 선거구 재조정이 단순 의석 수 변화를 넘어, 하원 내 위원회 구성과 정책 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

  -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관세·법인세·무역협정 비준권을 관장하는 핵심 위원회로, 다수당 교체 시 의장 교체 및 법안 우선순위 재편 가능

  - 에너지·상업위원회(Energy & Commerce Committee): LNG 수출 인허가, 반도체·AI 규제, 의약품 약가 등 광범위한 산업 정책을 다루며, 위원 구성 변화가 개별 산업에 직접적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음

- **하원 다수당 향방에 따른 주요 정책 기조 변화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이 요약**

  - 공화당 다수 유지 시: 감세 영구화·에너지 규제 완화·추가 관세 법제화 기조가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민주당 하원 탈환 시: 관세 제한 입법 추진·친환경 세액공제 복원 시도·행정부 통상 권한 축소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 이동 예상

3. 향후 주요 경선 일정 및 관전 포인트

일정	주요 경선 주(州)	관전 포인트
6월 2일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멕시코	• 재조정 선거구 첫 적용, 공화·민주 양당 핵심 경합 선거구 후보 윤곽 확정 예상
6월 16일	조지아 (주지사 결선)	• 트럼프 지지 후보 vs. 거액 자본 후보, 트럼프 공천 파급력 추가 검증 전망
6~7월	플로리다, 버지니아	• 재조정 진행 중인 두 주의 새 선거구 최종 확정 여부 및 경선 등록 마감
8월 4일	애리조나, 캔자스, 미시간, 워싱턴	• 경합 선거구 밀집, 하원 다수당 향방에 가장 직접적 영향
11월 3일	총선 (General Election)	• 하원 435석·상원 33석·주지사 30여석 동시 선출, 제120대 의회 구성 확정

[자료: 폴리티코,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 종합]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NYT (5.19)(5.20), FT (5.19), 브루킹스(5.12), Cherry Bekaert(5.12) 등 현지 언론 및 자료 종합

미국 경제통상 동향

(반도체) 화웨이, 1.4nm급 초미세 첨단 칩 관련 자체 기술 공개

•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1.4나노미터(nm) 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 개발 발표**

- 화웨이(Huawei) 테크놀로지스, 자체 개발한 **'LogicFolding' 기술을 통해 2031년까지 1.4나노미터(nm) 첨단 반도체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5.25)

- 화웨이 반도체 대표 허팅보(He Tingbo)는 'LogicFolding 기술*로 '28년부터 TSMC와의 첨단 반도체 격차 축소를 위해 동 반도체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

* 칩이 탑재하는 트랜지스터 수를 늘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최적화하여 성능을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술(Tau Scaling Law(일명 'Her's Law')로 미세공정 대신 시간 스케일링 중심 접근 기술

- 동 기술은 ASML 극자외선 노광장비(EUV) 장비* 없이 첨단 반도체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자체 기술로, 미국의 ASML EUV 중국 수출통제 이후 6년 만에 대안 기술 공개

* 5nm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극자외선 노광장비 EUV(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는 ASML만 생산가능한 반도체 핵심 기술 장비로, 빛으로 실리콘 웨이퍼에 초미세 회로를 새기는 기술

- 단, 이론적·기술적 의미는 있지만 실제 양산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며, 비주류 공정으로 글로벌 최첨단 수준 도달 가능성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

▪ 자료원	블룸버그(5.24)

(수입규제) 美 상무부, 한국산 철강제품 AD·CVD 연례재심 최종 결과 발표

• **美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내식강·대구경 용접강관 등 철강제품 3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AD)·상계관세(CVD) 연례재심 최종 결과를 발표**(5.14)

- (열연강판) 상무부는 한국기업들이 심사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 반덤핑관세율을 확정*

* 예비판정 대비 변경 없이 최종 확정

- (내식강) 주요 한국 기업 모두 최종 덤핑마진 0.00% 적용, 상무부는 심사기간 동안 덤핑 판매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 (대구경 용접강관) CVD 연례재심 결과 D社 0.41%*, E社 0.79%의 최종 보조금률 확정, 기타 비선정 기업에도 0.79% 적용

* D社의 보조금률은 미 상무부 기준상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미소마진(de minimis)에 해당

- 상무부는 공표일로부터 35일 이후 CBP에 관세 정산 지침을 전달하고, 향후 수입분에는 기업별 최종 AD·CVD율을 현금예치율로 적용할 예정

〈한국산 철강제품 AD·CVD 연례재심 최종 결과〉

품목	조치 유형	심사 기간	주요 대상 기업	최종 판정 결과	특징
열연강판	AD	'23.10~'24.9	A社	1.49%	낮은 수준의 AD율 확정
			B社·C社	1.22%	
내식강	AD	'23.7~'24.6	A社·B社·C社·D社 등	0.00%	덤핑마진 0% 적용
대구경 용접강관	CVD	'23.1~'23.12	E社	0.79%	낮은 수준의 CVD율 확정
			기타 비선정 기업	0.79%	
			D社	0.41%	de minimis 판정

[자료] 미 연방관보(5.14)

▪ 자료원 | 연방관보(5.14, 5.14, 5.14)

(조선업) 美, 2027 회계연도 조선 계획 발표

• 美 해군, 2031년까지 450척으로 확대, 동맹국 조선소 활용 방안 검토

- 미 해군은 2027 회계연도 조선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내 조선 역량이 요구 일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맹·우방국 조선소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예정

- 현재 전투함 보유 수는 290여 척으로 법정 요구 수준인 355척에 미달하며, 해군은 2027년까지 395척, 2031년 말까지 450척으로 함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美 해군, 보조함 해외 건조 추진, 정책 이행 여부는 불확실

- 트럼프 행정부의 회계연도 2027년 조선 분야 예산은 총 658억 달러 규모로, 유인함 34척, 무인 플랫폼 5기 건조 예산을 포함

- 해군은 회계연도 2027년 국방수권법에 보조함 2척 해외 건조 승인 및 전투함 일부 모듈의 해외 제작 유연성 부여를 위한 입법 변경을 미 의회에 요청

- 수상 전투함의 경우 미국 주계약업체가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체 구조물 등 대형 비민감 모듈을 제작하는 하도급 방식을 제안하며, 최종 조립·기밀 체계 통합·시험·활성화는 미국에서 수행하여 보안을 유지할 계획

- 보조함의 경우 동맹국 조선소 주도로 해외에서 건조하고, 후속 함정은 미국 조선소 또는 미국 내 외국계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

-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은 미국 내 건조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해외 조선소에 미 해군 선박 건조 정책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

▪ 자료원 | 미 해군(5.11), 디펜스 뉴스(5.11)

(입법) 美 상원, 상무부 232조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 민주·공화 초당적 공조로 232조 조사 투명성 의무화 입법 추진에 귀추 주목

- 게리 피터스(민주, 미시간)·수전 콜린스(공화, 메인) 상원의원은 상무부의 232조 조사 결과 요약본을 조사 개시 후 270일 이내 또는 대통령 보고서 제출 시점 중 이른 날까지 연방관보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232조 공공 투명성법' 발의(5.22)

  * Section 232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수입품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을 건의할 수 있는 규정

- 트럼프 행정부는 로봇공학·구리·반도체·의약품 등 다수 품목에 대해 기록적인 수의 232조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완료된 조사 결과를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현행 무역확장법상 요약본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 피터스 상원의원은 "중국 등 적대국을 겨냥한 표적 관세는 유효한 정책 수단이나, 광범위하고 혼란스러운 관세가 기업·소비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정부는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초당적 입법 추진 의지 표명

▪ 자료원 | 인사이드(5.22)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중국견제 (5.19)	H.R.8901 (하) (5.19)	John Moolenaar (공)	〈특정 외국 기관과의 연방 연구 협력 금지법〉 ▪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연구가 특정 외국 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수출규제 (5.19)	S.4560 (상) (5.19)	Pete Ricketts (공)	〈주요 수출 대상국 위험 완화 법안(Moving Away from Risk to Key Export Targets Act)〉 ▪ USDA가 USTR과 함께 무역 중단이나 군사 충돌 시 위험 가능성이 있는 미국 농산물 수출품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무역정책 (5.19)	S.4563 (상) (5.19)	Gary Peters (민)	〈국가안보 수입 조사보고 의무화법(Section 232 Public Transparency Act)〉 ▪ 1962년 무역확대법을 개정해,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수입품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의 정보 공개 기한을 의무화
반도체 (5.21)	S.1473 (상) ('25.4.10)	Mike Rounds (공)	〈반도체 기술보호법(Stop Stealing Our Chips Act)〉 ▪ 반도체 등 전략적 기술의 불법 수출·유출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내부고발자에게 연방 차원의 보상 및 보호 제공 ▪ 미국의 핵심 기술이 해외 경쟁국 또는 적성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 및 국가안보 기반의 집행력 강화하는 법

* 5월 26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Brookings	6/2 9:30~10:30 am	〈The Powell years at the Fed: A retrospective Ben Bernanke, Janet Yellen〉 ▪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패널로 참석하며 통화정책과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논의	링크
CSIS	6/4 10:30~11:30 am	〈Data Centers, AI, and the Future of U.S. Strategic Competitiveness〉 ▪ 데이터센터의 급속한 확장이 AI의 미래, 에너지 수요, 그리고 미국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링크

* 5월 26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The Housing Market's Latest Hurdles: Copper, Lumber, Diesel and Aluminum (구리·목재·디젤값 줄인상…美 주택시장 덮친 '건설비 쇼크')
	고금리 장기화에 더해 이란 전쟁 및 공급망 불안이 야기한 구리·목재·디젤·알루미늄 등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이 미국 주택 공급 및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있어
The Washington Post	Trump administration proposes NDAs for all federal workers (트럼프 행정부, 全 연방 공무원 대상 '기밀 유출 방지' NDA 추진)
	트럼프 행정부는 언론 유출 방지를 위해 모든 연방 공무원 대상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광범위한 제한이 민주적인 토론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The New York Times	U.F.C. Fight Venue Takes Shape on the White House Lawn (백악관 한복판에 등장한 UFC 옥타곤)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 및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중 하나로 추진 중인 UFC 경기 관련, 백악관 사우스론 내 옥타곤 건설 현장사진이 공개돼. UFC 선수들의 체중은 링컨기념관에서 측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CNN	We're living in the 'premium economy' economy (美 소비 양극화로 '프리미엄 이코노미' 시대 열려)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이 항공·식료품·여행 등에서 한 단계 높은 소비를 선택하는 이른바 '프리미엄 이코노미'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상승한 임금을 주택, 은퇴 대비 비교적 접근 가능한 프리미엄 소비에 지출하며 월마트·유나이티드항공 등 중고가 브랜드가 주목을 받고 있어
USA Today	'It's insulting.' Why some Canadians are avoiding the US ('미국 대신 유럽, 국내여행 간다'…캐나다인 美 여행 급감)
	캐나다인은 미국 여행객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었으나, 작년 초부터 여행객이 급감해. 캐나다인들은 더 환영받고 안전한 여행지인 유럽, 중남미. 국내여행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미국 동부 시간 5월 26일 15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도입 관련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규제명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분야	규제명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담당기관
통보	화학세라믹	SB 54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 책임법 상설 규정 통지	KTR
		SB 1013 신규 음료 용기 추가 영구 규정	
		유해 대기오염물질 국가 배출 기준: 멸균 시설의 에틸렌옥사이드 배출 기준 잔류 위험 및 기술 검토 재검토	
		유해 대기오염물질 국가 배출 기준: 화학 제조 지역 배출원 기술 검토	
	교통/안전	연방자동차안전기준;자동화 주행 시스템(ADS) 장착 차량 수용을 위한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제102호 현대화	KCL
		연방자동차안전기준; FMVSS No. 103 및 FMVSS No. 104의 자율주행시스템(ADS) 장착 차량 수용을 위한 현대화	
	에너지	재생연료 기준(RFS) 프로그램: 2026년 및 2027년 기준, 2025년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연료 물량 요건의 부분 면제 및 기타 변경사항	KTC
미통보	식의약품	플라스틱 제품 환경 라벨링에 관한 법률, 상원 법안 567호 제정(2011년) 및 기타 – 수정안 – (허위 재활용 가능성 표시에 관한) 상원 법안 343호 제정(2021년)	KOTITI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14	美 하원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 패키지 의결 동향 및 주요 내용	2026.5월
US26-13	美『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26.5월
US26-12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 232조 관세 개편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4월
US26-11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주요 내용	2026.4월
US26-10	제14차 WTO 각료회의 주요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2026.4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 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26 (2026.2.6.)		
코인시-25 (2026.1.24.)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